김용일 코치를 움직인 건 류현진의 조력자 '자부심'

▶ 1면에서 이어집니다

●주당의 금주, 자신과의 약속

김 코치와 류현진의 동행이 쉽게 결정된 건 아니다. 김 코치는 1989년 MBC 청룡(LG 트윈스 전신) 트레이너를 시작으로 꼬박 30년간 야구 현장 일선에서 선수들의 몸을 돌봤다. 류현진과 인연은 2016시즌을 마친 뒤를 시작으로 3년간 비시즌마다 그의 몸을 돌보며 시작됐다. 2019시즌을 앞두고는 류현진이 김 코치에게 풀타임 동행을 부탁했다.

3년간 쌓은 신뢰, 여기에 '괴물투수' 류현진의 존재감에도 김 코치 입장에서 선뜻 미국행을 결정하긴 어려웠다. 한국에서 다져둔 안정적인 입지를 모두 포기해야 했으며, 학업을 마치지 못한 두 아들과 아내가 눈에 밟혔다. 그런 김 코치가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건 자부심, 그리고 학구열이었다. 그는 "일본인 메이저리거들은 대부분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했다. 당장 마에다 겐타(다저스)도 그렇다. 하지만 박찬호부터 추신수, 오승환 등 한국 선수들은 그러지 못했다. 류현진이라는 최고의 선수에 어울리는 지원을 하는 게 1차 목표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김 코치는 "ML이라는 큰 무대의 트레이닝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부딪혀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땅을 밟은 김 코치의 첫 과제는 다름 아닌 금주였다. 자타공인 '주당'이었던 그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맥주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다. 행여 훈련장에서 술 냄새를 풍기기라도 한다면, 그 이미지가 곧 한국인 스태프들을 대표하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개인적 컨디션 난조로 한두 경기쯤 휴가를 낼 수 있다. 하지만 ML에서는 다르다. 난 오로지 현진이만 돕는 사람이다.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된다는 사명감에 오히려 내 몸 관리부터 신경 썼다. ML 구단들은 경기 후 선수들의 식탁에 맥주를 구비해둔다. 외로운 날에는 술 한 잔에 기대고 싶었지만 어떻게든 버텼다."

●아재는 괴물이 자랑스럽다

류현진은 인터뷰마다 김 코치에 대한 고마움을 빼놓지 않는다. 21살의 나이차에도 '아재'라는 친근감 가득한 별명으로 너스레를 떤다. 류현진의 행선지가 정해지지 않은 탓에 김 코치의 2020년 거취도 불투명하지만, 그는 언제든 기다리겠다는 각오다. 김 코치에게 류현진에게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부탁했다. 머쓱하다며 망설이던 김 코치는 이내 진심을 전했다.

"현진아, 2019년 네가 기록한 모든 건 스스로의 노력 덕분이다. 그 노력을 옆에서 도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하다. 앞으로 ML에서 몇 년을 더 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의 성실함이라면 더 선명한 발자취를 남길 것으로 확신한다. 아시아를 넘어 어느 선수들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화려한 역사를 쓰도록 응원할게!"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정부, 예술·체육요원 '병역 대체 복무 개선안' 발표 의미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대체 복무 불가

군 복무와 대중예술인 기량 영향 적어
예술·체육 요원 대체 복무 제도는 유지

국가대표 선발땐 기준·과정 자료 공개
단체종목 선수 1분도 안뛰어도 혜택
부실 신고 대상 확대·요원 관리 강화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왼쪽 두 번째)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큰 틀에선 종전의 혜택을 유지하지만, 대표선수 선발 과정의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절차, 요건 등의 핵심사항은 명시하기로 했다. 뉴시스

정부가 '병역 대체복무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인기 대중가수의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는 유지된다. 예술·체육요원 복무 대상은 특정 대회에서 입상해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인원이다. 관련 분야 복무 중 34개월 간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현행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동일하다.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아시아게임은 금메달을 획득한 인원들에 대해 대체복무 혜택이 주어진다. 세계선수권은 종목별 편차 등을 고려해 기존처럼 포함되지 않았다. 아시안게임은 지난해 야구 등 일부 단체종목 선수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지만 성적에 다른 혜택을 유지한다.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내면 국민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신 대표선수 선발 과정 등에서 불거졌던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절차·요건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의 삭제다. 단체 종목의 일원으로 올림픽 혹은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는 최소 1분이라도 출전해야 성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출전하지 않아도 성적에 따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편입자격 부여를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막고, 경기 외에도 훈련 등 대회를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에서 팀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요원 대체복무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며 "전통음악은 콩쿠르도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대중예술에는 없다. 대중문화 예술인의 기량이 군 복무로 현저히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예술·체육요원 복무 관리를 강화키로했다. 복무 이행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간 주의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경고 처분한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 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된다. 고발돼 형까지 선고받는 경우 대체복무 요원 편입이 취소된다.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재편입이 금지된다. 대체복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을 복무가 부실한 대체복무 요원까지 확대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BTS를 후보지명 하지 않은 그래미, 시대에 뒤떨어졌다"

BTS 그래미 입성 불발…현지 반응

비영어권 가수·댄스 음악에 배타적
현지 권위있는 음악 매체 '롤링스톤'
"그래미도 BTS의 큰 성공 인정해야"

그룹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어워즈 '입성'이 불발됐다.

각종 신기록을 써내려온 방탄소년단은 내년 미국 그래미 어워즈에 후보에 올라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등 세계 3대 음악 시상식을 제패하는 '그랜드 슬램'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후보로 지명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그래미상을 주관하는 미국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가 제62회 그래미 어워즈 84개 부문 후보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방탄소년단은 한 부문에도 후보로 오르지 못했다.


BTS

앞서 방탄소년단은 4월 앨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200' 1위를 차지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 월드투어로 연 인원 200만 명을 동원하며 글로벌 슈퍼스타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졌다. 특히 20일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로부터 한국가수 최초로 올해의 '히트메이커'로 선정되면서 그래미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일각에서는 내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이들이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베스트 댄스/전자 음악 앨범' '신인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욱이 올해 2월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 '베스트 R&B 앨범' 시상자로 나서고, 미국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정되면서 더욱 무게가 실렸다. 이는 장벽 높은 그래미가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미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받은 만큼 그래미 후보 지명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기대는 어긋났다. 세계 3대 음악상 가운데 그래미가 가장 폐쇄적이며, 비영어권 가수와 힙합이나 댄스 음악에 더욱 배타적인 탓으로 보인다. 이에 현지 권위있는 음악 매체인 롤링스톤은 "그래미가 BTS(방탄소년단)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BTS가 비욘세 등 미국의 팝스타들보다 더 많은 앨범을 팔고 더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후보로 지명하지 않은 그래미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미는 이제 글로벌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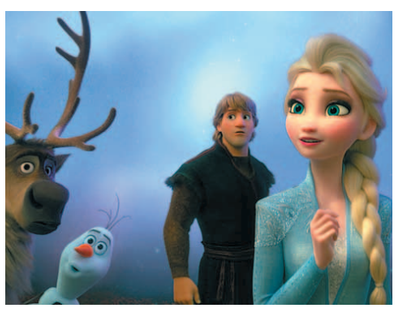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개봉전 예매로 100만 관객 돌파…'겨울왕국2' 1편 신화 뛰어넘을까

어벤져스 3,4편 이후 역대 세번째
완성도 굿·주제곡은 폭발력 덜해
국내 영화계, 스크린 독과점 지적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의 기세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21일 개봉 직전 예매로만 1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현재 예매율도 92.2%(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를 기록하며 첫 주말 얼마나 많은 관객을 모을지 주목된다.

'겨울왕국2'는 예매량으로 지난해 '어벤져스' 3편(인피니티 워)과 올해 4편(엔드게임) 이후 역대 세 번째다. 엇비슷한 기록으로 출발한 두 편의 '어벤져스' 시리즈가 나란히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사실에 비춰 '겨울왕국2'의 흥행 전망 역시 밝다. 한껏 높아진 관객 기대치에 영화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 흥행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겨울왕국2

일단 초반 평가는 이야기나 완성도 면에서 1편을 뛰어넘는다는 쪽으로 쏠린다. 주인공 자매 엘사와 안나를 진취적인 여성으로 그리는 점에도 호평이 따른다. 다만 어린이를 위한 동화보다 성인 관객을 겨냥한 철학적 메시지가 뚜렷해 다소 어둡고, 주제곡 '인투 디 언노운'이 1편의 '렛 잇 고'보다 폭발력이 덜하다는 반응도 있다.

'겨울왕국2'의 이 같은 기세는 국내 유일 1000만 관객 애니메이션의 후속편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집중된 결과이지만, 사실 극장들이 앞다퉈 상영관을 전진 배치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이에 영화계 내부에서는 '겨울왕국2'가 다시 촉발한 스크린 독과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화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는 21일 "'겨울왕국2' 개봉에 따라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재점화했다"며 "개선되지 못하는 현실에 동시기 개봉 한국영화는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인 대책위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독과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